**연중 제19주일 강론(2019년 8월 11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오늘 복음과 독서의 주제는 ‘믿음’과 ‘소명’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자는 것이고, 도대체 왜 믿자는 것입니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행복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다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이야기이지요.

가톨릭 신자로 살아가면서 주변에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소명입니다. 가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가톨릭 신자인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내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 자랑만 하고, 남을 비판하기 좋아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싱글벙글 늘 얼굴에 미소를 담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늘 불평하고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평생 고맙고 좋았던 일만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섭섭하고 서운했던 일만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 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불행 합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하고, 겉모습만 신경쓰고 사는 사람은 불행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 합니다.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겸손과 양보가 몸에 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교만과 거만이 몸에 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고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반면에 늘 따지기 좋아하고, 비판적이고, 잔소리 잘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싫어하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어떤 평신도 선교사 부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떤 미국인 평신도 부부가 선교사로 평생 함께 살아갈 것을 맹세하고 아프리카의 어떤 작은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은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부 문화와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자연신을 숭배하는 원시 부족이었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가 처음 그 마을에 정착을 할때는 나름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자연을 숭배하는 착한 부족이었기 때문에 온화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을의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거나 개종할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선교사 부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선교사 부부의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그 지역의 풍토병에 걸려서 심하게 앓아 눕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아주 지극 정성으로 열심히 기도 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아들의 장례가 끝나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갑자기 그 마을의 추장과 원로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 마을 주민들이 모두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깊은 신앙과 믿음을 본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눈 앞에 두고, 그리고 이렇게 먼 이국땅에서 오로지 믿음 하나만으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그 하느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하느님을 믿어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원시 부족 마을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마을 한 가운데 커다란 성당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소명입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재벌들의 화려한 자선 파티에 하루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재벌 정치인이 인도 켈커타 빈민가에서 일하는 데레사 수녀의 활동에 대해 잠시 언급한 뒤 수녀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여기 저기 소문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별다른 성공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좌절하거나 실망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마더 데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전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제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이야기한 이 ‘사랑의 임무’가 우리의 소명입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나만 잘나고, 내 고집만 내세우고, 내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달리,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낮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이 신경쓰며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존심, 고집, 편견, 부질없는 욕심과 집착들, 지난 시간들의 상처와 서운한 감정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걸림돌이 우리를 행복하기 어렵게 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도 흔들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 혼인 잔치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늘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내일 아침을 준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합니다. 여행을 준비하고, 성지 순례를 준비하고, 다음 달에 있을 추석 명절을 준비하고, 은퇴 후의 편안한 삶을 미리 준비하고, 건강한 삶을 준비하고, 그리고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을때, 인생에서 정작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무엇인가를 준비하느라 늘 바쁘기만 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충실한 종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언젠가 만나게 될 우리의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